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 | | |
|--|---|
| 1. 항일의 혈전만리 일제를 쳐부시고
삼천리 내 나라를 찾아주신 수령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만세 만만세
인민은 인사를 드린다 영광드린다 | 2. 전화의 불길 헤쳐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신 수령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만세 만만세
인민은 인사를 드린다 영광드린다 |
|--|---|

3. 이 땅에 자위의 강국을 세우시고
반제의 한길로 이끄시는 수령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만세 만만세
인민은 인사를 드린다 영광드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애국 위업은 영원한 주체의 태양

4월의 봄명절, 태양절이 왔다. 핵과 위성을 가진 강국의 존엄과 위력으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강성국가를 반드시 건설할 전민의 애국충정과 결사의 의지가 끝없이 격앙되고있는 때에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일을 경축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제시로 민족의 평명한 미래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역사적리정표를 세운 뜻깊은 시기에 태양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경모와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나라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키고 강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우리 조국이 통일번영하고 민족이 대대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다.

주체는 자주의며 곧 애국이다. 민족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자주적운영개척의 지도리념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수령님께서 80평생 언제나 자주의 기치높이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지난 세기 수령님께서 벌리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은 외세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었다. 그이께서는 고전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을 떠나 기성리론의 명제에나 매달리고있을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주체의 진리를 밝혀주시었고 선군의 총애와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

영원한 주체의 태양

시켰다. 주체를 필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철의 신념과 드물지 않은 배짱을 지니신 수령님이시였기에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전로정에서 언제나 공화국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었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못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는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자주적인 로선과 방식대로 하고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공을 물리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도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의 새로운 전범을 적용하여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수령님이시다.

전후 일부 나라들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통합경제》를 운운할 때에도 수령님께서 는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안다고 단호히 배격하시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었다. 그들의 자주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조국인민들은 자주정신의 강자로 자라났고 미국이 《조선은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던 전쟁 후국침략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부극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결의하시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 못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는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자주적인 로선과 방식대로 하고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공을 물리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도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의 새로운 전범을 적용하여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수령님이시다.

전후 일부 나라들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통합경제》를 운운할 때에도 수령님께서 는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안다고 단호히 배격하시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었다. 그들의 자주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

4월이 왔다. 산을 바도 들을 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가슴그득히 차오르는 이 시각,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생각으로 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한평생 인민을 위해 사신분,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셨고 깊은 밤 눈내려도 인민을 찾으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언제나 수령님을 못 잊는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수자가 있다. 57만 8 000여km(144만 5 000여리)! 이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시어 조국에 개척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신 현치구의 총연장거리이다. 지구를 무려 열네바퀴반이나 돈 것과 맞먹는 그 머나먼 길을 수령님께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인민에 대한 열화갈

은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으시었다. 그 길위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철에 빠진 승용차를 한치한치 미시며 북방의 농촌마을을 찾아 가신 이야기도 있고 한낮이

이 되어 살아온 그 나날을 인민들은 못 잊는다. 력사의 그 나날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가 온 나라 강산에 절절히 울려퍼졌다. 그것은 인민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며 한평생 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수령님에 대한 온 나라

있는 위엄천만만 장제도까지 가시어 항명을 비롯한 섬마을아이들과 추북해주시던 모습, 새로 일떠선 창건거리의 가정들을 찾으시어 성냥바닥 《세계명작동화집》을 비롯한 새집들이 선물까지 안겨주시던 모습... 정녕 경제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자주자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려면 나는 그분이 민

주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려면 나는 그분이 민

주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려면 나는 그분이 민

주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려면 나는 그분이 민

주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려면 나는 그분이 민

주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존경과 신뢰감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려면 나는 그분이 민

이끄신 장군님에 의해 우리 나라는 존엄높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존엄과 지위를 가지게 된것이다.

조선의 CNC가 첨단을 돌파한 가운데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비날론복도가 쏟아지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펼쳐져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원대한 부강조국건설위업은 오늘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한결같은 양보다,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데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애국의 진로를 명시하시고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제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하늘높이 날아올랐고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 성공하여 존엄높은 우주강국,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이고 녀원인 통일된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위대한 애국의 로선이다. 민족의 어머니를 끝없이 경모하며 우리러 모시는 겨레의 마음이 뜨겁게 분출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태양절과 더불어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태양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앞길을 오늘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본사기자 리경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는 근로자들 -만경대혁명사적관에서-

김일성주석과 생신날

경제하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불변불퇴의 로고로 삼랄을 기울이시며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인간, 민족의 어머니의 자생이었다.

생신날마저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때가 많으신 수령님이시다. 주체35(1946)년 4월이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수령님의 생신날을 앞두고 김정숙녀사께서 그 준비를 서두르셨다.

어느날 그 기미를 아신 수령님께서는 나서게 음식을 여분이 있게 하라고 하시었다.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분방한 나날을 맞고보내시는 수령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된 항일의 전우들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생신날에만은 편히 쉬시기를 바란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은 다르게 벌어졌다. 수령님께서 자신의 생신날을 위해 나서게 마련하신것을 가지고 산에서 함께 싸운 전우의 결혼상을 차리도록 하신것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주체 43(1954)년 4월 15일에도 수령님께서 중화군의 한 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시어 농민들과 함께 무릎을 마주하시어 농사일을 논하시며 자신의 생신날을 보내셨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몸을 바치는 로고속에 그의 기쁨이 있었고 인민의 행복속에 자신의 락을 찾으신 수령님이시었다.

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한 한 외국인이 김일성주석을 만나보내오기 있었다. 그때 집전석상에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그가 자기 는 오늘 생일을 쇠는것만 같

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 는 환하게 웃으시며 생일이 아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번에 우리 인민들이 나의 생일 70돐을 맞으면서 산란과 병상판도 세우고 수많은 살림집도 건설하였다고, 나는 원래 생일쇠는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 생일을 계기로 이처럼 모두가 좋은 일만 한다면 생일을 더 쇠고싶다고 하시었다.

순간 그는 《탄생일에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락을 찾으시는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 불세출의 위인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고 감동을 토로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 있어서 자신의 생신날은 인민을 위한 로고의 평범한 하루였고 인민의 기쁨속에 행복을 맞으신 헌신의 24시간이었다. 본사기자

은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으시었다. 그 길위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철에 빠진 승용차를 한치한치 미시며 북방의 농촌마을을 찾아 가신 이야기도 있고 한낮이

이 되어 살아온 그 나날을 인민들은 못 잊는다. 력사의 그 나날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가 온 나라 강산에 절절히 울려퍼졌다. 그것은 인민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며 한평생 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수령님에 대한 온 나라

있는 위엄천만만 장제도까지 가시어 항명을 비롯한 섬마을아이들과 추북해주시던 모습, 새로 일떠선 창건거리의 가정들을 찾으시어 성냥바닥 《세계명작동화집》을 비롯한 새집들이 선물까지 안겨주시던 모습... 정녕 경제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오늘도 빈몰는 수령님모습

기술 때까지 여러 농장포진 을 돌아보시고 꽃강병이로 때로는 점심식사를 하신 사실도 있었다.

이른새벽 인민들의 집을 찾으시여서는 집주인이 깨 여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주신 이야기, 인민들이 먹는 장맛까지 친히 보아주시며 그리도 다심한 정을 기울여 주신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그처럼 인자하신 아버지수령님께 늙은이건 젊은이건 아이건 누구나 다 귀속달로 속마음도 아퇴이며 말그대로 온 나라가 한가정

인민의 열화갈은 호모의 송가였다.

오늘날 인민들은 노래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를 부르며 아버지수령님 한평생 견고결고인 이인위천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명절날에도 어느 한 기계공장의 평범한 녀성로동자들과 함께 계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의 모습, 몸소 목선을 타시고 조국의 서남전선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모습그대로였다.

인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지난해 태양절경축 열병식에서 연설하시던 경제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해방후 조국인민들앞에서 개건연설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보였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참가한 나 어린 대표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에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양으로 내세워주시던 수령님의 후대사랑을 느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이 나라 인민들은 불같은 호모의 마음을 터쳐 긍지높이 노래한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제하는 원수님은 한분님입니다!

또 한몸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오늘도 출기차게 흐르는 사랑과 믿음의 략을 터쳐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민의 아버지,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김춘경

《사랑가》에 어려오는 애국의 세계

은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마음이 달려오는 유서깊은 성지만경대.

민족의 태양 찬연히 솟아오른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는 지금도 《사랑가》의 은은한 선율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들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사랑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전의 나날 몸소 지으시고 한평생 사랑하며 즐겨부르신 노래이다. 누구나 고향에 대한 노래를 사랑한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가》에 대한 각별한 애착의 세계는 단지 고향만경대에 대한 사랑에만 닿아있지는 아니었다.

그 시절에 절절히 실려오는 어머니의 모습, 문앞에서 눈물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그 어머니는 한가정의

어머니만이었었다. 은은한 선율속에 어려오는 시내가의 어린 동생들의 모습은 아마도 한몸에 안으실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모습이라. 달밝은 밀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대원들과 함께 《사랑가》를 부르시어 위대한 수령님 마음속에 안아보시던 아름다운 만경대는 곧 총대로 되찾아야 할 삼천리금수강산이었다.

진정 《사랑가》는 고향의 동구길을 벗어나 조국이 라는 성스러운 세계를 안고 사신 위대한 인간의 노래이다. 보통의 심정으로써는 그럴수 없는 숭고한 애국의 선율이다.

《사랑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녀원이 어 려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사랑가》를 부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 불멸의 화폭에서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 한평

생 안고사신 애국의 뜨거운 녀원을 다시금 되새기고있다. 어이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그리고 줄기차게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셨는가를 눈물겹게 절감하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그 녀원, 위대한 장군님 꺾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꽃피워오신 그 리상이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이 땅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존엄을 떨치며 전제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천하제일강국, 통일강성국가를 모란듯이 일떠세워가고있다. 절세위인의 애국의 세계가 비친 《사랑가》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가고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주제가인 《사랑가》는 어제도 오늘도 끝없이 울리고있다. 김혜숙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어느덧 1돐이 되었다.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이 땅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존엄을 떨치며 전제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천하제일강국, 통일강성국가를 모란듯이 일떠세워가고있다. 절세위인의 애국의 세계가 비친 《사랑가》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가고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주제가인 《사랑가》는 어제도 오늘도 끝없이 울리고있다. 김혜숙

깊이 절감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은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피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것이 경제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구상과 결심에 따라 지난해에 평양에서만 해도 평양양광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경공업공장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를

이 출지어 일떠섰으며 창건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과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인민극장, 평양야외백화점, 평양산원 휴양총양원구소가 우뚝 솟아올라 인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다. 지난해 봄날 그이께서는 일출하는데 내가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대하여 격정하는데 일없다고,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터놓으셨다고 한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

은시는 경제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그 한가시 생가만이 자리잡고있는 것이다.

올해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을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으로 제시하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 미국과 추추세력들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성된 일촉즉발의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전국경공업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를 열도록 하시 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라고 하신 경제하는 원수님의 연설에서 사람들은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문명강국의 앞날을 그려보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강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완수될것이다

영원한 태양의 성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향하고있다.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시다.

10대에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20대에 황일의 전설적영웅으로 겨레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으며 30대에는 조국해방의 대사건을 안아오시고 40대 초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타승하고 전승의 업적을 이룩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다.

공화국의 인민들을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었

으며 공화국을 존엄높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회세의 위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의 뜻과 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해 꽃이 피어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떨쳐지는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재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일찌기 애국의 길에 나서신 장군님께서 위인이 되실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정도로 애국적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애국의 천만장성을 이어오신 장군님에 의해 우리 조국은 불멸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의제도 감히 건



태양 칭송의 꽃바다 제15차 김일성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15차 김일성화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4월의 봄과 더불어 열다섯 번째 년풍을 새기며 성황리에 열리는 김일성화축전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축전장인 김일성화 김일성화전시관에는 《제15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칭송의 꽃바다》 축전마크가 나붙어있고 공화국의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다.

태양의 꽃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특색있게 장식된 축전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모셔져있다.

회사의 천출원인들, 우리 나라의 공화국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김일성화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다.

축전개막식이 12일 김일성화김일성화전시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천만군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끓어치고있는 속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15차 김일성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선군조선의 국보이며 우리 근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생애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서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세상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과 더불어 아버지수령님은 언제나

절세위인들의 선견지명

명쾌한 해답

지난 세기 1960년대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이 새롭게 제시되었을 때였다.

어떤 사람들은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건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건설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령도로 보나 인구는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국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고 더우기는 아직 그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생소한 것이어서 그 근본과 진수를 대해 쉬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건설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대한 로선은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자주정치, 인민정치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건설로선이며 선군의 기치 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건설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대한 로선은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자주정치, 인민정치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건설로선이며 선군의 기치 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이라고 하시었다.

현명한 선택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애국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요구에 따르면 선군시대에는 경제건설도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해나가야 한다.

주체92(2003)년 8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 일꾼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무렵 아버지수령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셨다.

국방건설만 하고 경제건설을 하지 않는것은 마치 아이들이 바지를 벗고 장도칼을 차는 격이다. 장도칼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차야 모양도 있고 위풍도 있지 바지를 벗고 장도칼을 찬 아이는 불모양이 없다. 국방건설을 하지 않고 경제건설만 하는 것은 마치 아이에게 고운 옷을 해입혔는데 장도칼을 채우지 않은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이께서 하신 심오한 비유의 해학적인 말씀에는 경제국방병진의 심오한 진리가 있었다.

수기 태양의 그 믿음을 안고

해 복무하는 훌륭한 전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믿음을 안겨주시고 은정에 나는 목이 메어 《수령님!》 하고 그의 넓은 품에 안겨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

하기에 뜻깊은 그날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리러며 그 어떤 절해도 도에 놓이고 하늘땅이 열백 번 변해도 오직 수령님한분만을 믿고 따를 굳은 맹세를 다지셨다.

그후 조국통일을 위한 싸

움에 나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도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사실 한두해도 아니고 35년세월 전향을 강요하는 교형리들의 악착한 고문과 회유기만, 굶주림속에서 신념을 지킨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몽둥이질질고문, 전기고문, 고추가루고문, 불고문 등 교형리들의 갖은 악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도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돌격을 과감하게 벌이고있는 속에 태양절을 맞으며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을 개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배우신대원수님의 영원영생으로,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높이 받들며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태양송가로 되어 울려퍼지는 대정치예술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을 헤아리시고 4월의 봄과 더불어 인민예술축전을 마련

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반미전면대결전을 승리에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올해 인민예술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중앙과 도시, 군경연에서 선발된 근 70개 단체와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한 이번 축전은 전국전문가예술축전, 전국예술선진대축전, 전국군민예술축전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뜻깊게 맞이하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근대와 인민의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축전이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에게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자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 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축전기발이 제양되었다.

민수천종합식료공장 지배인 한동용, 황해북도 예술선진대 대장 리계승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이번 축전을 통하여 태양의 노래를 끝없이 울려가며 선군문화발전과 사회주의명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개막공연이 있었다.

우리 장단이 제일

나는 이번에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에 왔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예술단성원으로 여러차례 외국을 방문하였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점이 많고 울수룩도 오고싶은 곳이 정든 고국이다.

단순히 선조의 뼈가 묻힌 땅이어서만이 아니다. 어릴 가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의 넋과 정기가 살아숨쉬고 주체성, 민족성이 활짝 꽃피어나는 땅, 오늘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고국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의 기둥으로,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나도 그곳에 들어가 11살 때부터 조선춤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조선춤이 들레로 폭 들었다. 우리 장단이 제일이다.

앞으로 우수한 민족무용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이역에 사는 동포들을 찾아가 공연도 하고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도 적극 참가하여 고국인민들을 기쁘게 하겠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예술단 무용배우 대애순





통일애국의 위대한 한평생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을 맞는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조국통일은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겨레에게 출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실험을 다 바치셨다. 나라의 정사를 토론하실 때에도 이른 새벽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어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언제나 피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고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씨오신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 백두의 일산준경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 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의 그 밤 등잔불을 추켜들고 비쳐오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에서 한나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셨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

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해방직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에 의해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함이 조성되었을 때 아버지수령님의 적극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해 평양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책동으로 인하여 민족분렬의 검은구름이 더욱 짙어가던 1970년대에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제시하시어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내외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된락적을 가하시었으며 분렬주의자들이 《통일불가능》론을 제창해나섰던 198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어 통일국가의 내보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던 1990년대 초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몸소 작성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리론 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사상과 리념, 정권과 신앙이 다르고 비록 지난날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손잡아 민족대단결의 대오에 내세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정령과 송고한 인민군, 민족애에 매혹되어 지난날 반공의 길을 걸었던 김구, 김규식, 최석채, 최홍익 등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각계 인사들이 그이를 찾아뵈고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 떨쳐나섰다.

정녕 우주와 같은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의 품은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한 품에 안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길로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것도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었다.

참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셨으로써 우리 민족은 외세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반통일대결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즐기게 되어오셨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통일애국의 길에서 겨레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도 진실처럼 전해지고 있다.

해방후 물이 없어 애타하는 남조선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공화국북반부의 저수지물을 보내주도록 하신 이야기며 가렐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시민들의 빨간문제를 걱정하시어 한강으로 나무를 떠내려 보내도록 하신 이야기, 큰물로 재난을 겪는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통이 큰 지진이 등 그들의 구원해주신 이야기 등 그의 동포애적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기지 못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민족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심혈,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민족의 아버이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외세에 의해 60여년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을 단호히 끝장낼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안으시고 오늘의 반미전면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만약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불장난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위력한 보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시킴에 대한 전략적로선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조선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이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로선이며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을 밝힌 불멸의 강령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3월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병진로선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는 보검이라고 하시었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보검이라고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철학적정세와 장기간의 조국통일운동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통찰한데 기초하

여 내놓으신 가장 현명한 가르치심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과 동강난 강도를 하나로 잇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남조선에 틀고앉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연습을 일삼는 분렬의 장본인인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에 의해 분렬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역적계당은 힘으로 공화국의 전진을 막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말살하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조선민족의 일치단결된 힘과 함께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할수 없으며 통일을 힘으로 방해하는 내외의 반통일세력과는 오직 보다 큰 힘으로 싸워이겨야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를 들로 갈라놓고 21세기인 오늘까지 조선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나오고있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다. 미국은 적하면 공화국과 우리 민족을 핵으로 위협공갈하면서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실현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공화국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끊임없는 핵위협에 맞서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배짱을 가지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해놓았다. 공화국이 그 누구

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무진막강한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지난날 화승대 하나 번번한 것이 없어 망국노의 피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 지 않고있는 근본요인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끝장내어 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해서도 공화국의 핵무력강화가 필수적으로 나서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통일애국세력과 분렬대국세력과의 힘의 대결이며 이 대결에서 통일애국력량의 결정적힘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공화국의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나아가야 한다.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친미사대대국세력이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해 갖은 협당질을 다하고있는 것도 그것이 분렬세력에게는 된다격으로 되고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로 되기 때문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병진로선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종국적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게 하는 정당한 통일애국로선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을 구현해 나가는 바로 여기에 겨레가 바라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고영수

뜻깊은 4월의 날들에

뜻깊은 탄생일에도

주제61(1972)년 4월 15일은 나라의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명절분위에 어울려 축하하시었다.

온 나라에 경축의 물결이 세차게 끓어치는 이날에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생각, 남녘인민들에 대한 생각이 뜨겁게 자리잡고있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려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남녘겨레들이 보고싶다고, 조국이 통일된후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사람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송고한 민족애와 절절한 통일념과 의지아래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온 민족을 격동시키고 온 세계를 놀래운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아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초대장을 쓰는 사업이 회의성과와 직접 관련되어있는것만큼 절대로 실무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다정히 자리에 앉히시며 어서 초대장을 계속 쓰라고 이르시면서 그들이 쓰는 글자의 배열과 간격, 글자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붓으로 한자한자 정성당아 쓴 글밭들마다에 애국의 뜻이 흘러넘치는 초대장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후 갈길 몰라 헤매이는 궂절 많은 운명들을 애국의 길로 따듯이 손 잡아 이끌어준 구원의 손길이었다.

위대한 강령

출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는것밖에 다른 출로는 없다. 전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담화석상에서 그의 머리속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민족단합사상과 탁월한 경륜이 하나의 맥락을 이루며 정리되고있었다.

그후 그는 자기의 평양 방문소감을 피력하면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끝없는 로고와 사색과 탐구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단합의 위대한 강령이라고 토로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와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돐이 되어온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강령적문헌이며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밝혀주시었으며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온 민족이 대단결할데 대해 밝히고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대량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연합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도 밝히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사상정신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민족단합의 대강이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

해 언제나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우리 민족끼리 기본정신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마련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전체 조선민족이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폭발전야의 분분초조를 다루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오늘의 반미전면대결전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사이의 대결전이다. 이성스러운 민족사적대결전에서는 북과 남, 해외가 따로 있을수 없고 사상과 리념, 계층이 따로 있을수 없다. 각자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장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마구 침범하며 삼천리강도우에 열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침략의 원흉인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

한 반공화국압살책동, 북침전쟁소동을 반대하여 총력기해나셔야 한다.

남조선과 해외도처에서 전민애국항쟁, 반미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제거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친미역적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이 편안할수 없으며 전쟁참화를 면할수 없다.

민족은 항일의 조국통일대전에 적극 합류하여 전쟁도발책동에 미처달취는 남조선의 친미반통일세력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한다.

공화국의 핵은 통일조국의 통일변명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을 지켜주는 공화국의 핵억제력에 대해 웅당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가시는 배두산천출령장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어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확보하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항의의 통일애국성전에 파갈히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하여야할것이다.

윤현주

병진로선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가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역사적인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면서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찬 삶도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고귀한 명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현 실태를 명확히 분석하시는데 기초하여 내놓으신 고전적정식화이다.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인민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지난 해가 40년대에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류에게 핵합화를 들이친 미국이 오래동안 반공화국적대시압

책동에 매달리면서 핵으로 공화국을 위협공갈해왔다는 것은 역사적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원자탄사용을 공공연히 떠들었으며 남조선에 방대한 핵무력을 배치해놓고 핵전쟁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지금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결코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책동과 북침전쟁책동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위협성이 더해가고있다. 핵전쟁전략폭격기(B-52)와 스텔스핵전략폭격기(B-2A), 핵잠수함 등 각종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 상공로 해상에서 들이밀어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런 이어 벌리고 핵추진항공모함전단들이 조선반도수역으로 몰려들고있는 현 상황은 반공화국핵전쟁소동의 최절정을 이루는것이다. 여기에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상건의 《핵우산》에 명줄을 걸고 북침핵전쟁의 불구름을 더욱 몰아오고있다.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는

미국의 이러한 끈질긴 반공화국핵위협, 북침핵전쟁소동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위의 핵억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공화국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와 압력,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세계앞에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섰다. 핵무력우에 평화가 있다는것을 피부로 절감한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핵독점시대를 끝장내었으며 결과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펼쳐지게 되었다.

만약 공화국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온갖 대조선적대시책동에 굴복하여 강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하여놓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는 벌써 핵전쟁이 터지고도 남았을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개발한 핵은 주로 약소국가들과 반제국주의국가들을 상대로 핵공갈과 위협을 일삼고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한 재난의 핵이라면 공화국의 핵은 그에 맞서 자주권수호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핵이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북의 핵이 (한) 반도의 핵전쟁을 막았다. 핵대핵 구조는 미국의 기를 꺾은것이다. 평화는 이렇게 북의 핵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다.》고 쓴것은 공화국 핵무력의 진가에 대한 보편적인식을 반영한것이다.

공화국의 강력한 핵무력우에 평화가 있다.

세계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각이한 국가들이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핵무기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규모의 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유는 핵무기의 고유한 특성에 있다. 핵무기는 그 위력과 파괴력에 있어서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수 있는 절대적 무기로 인정되고있다.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

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던 핵무기로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만 든든히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며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 특히 공화국의 경우에는 상대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고 미국이 공화국에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은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및 현실적요구로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한것이다.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수

시 후대들은 이야기 하리

내 존엄을 삶을 누리며
우리 당 제4기 제5차전원회의 뜨겁게 추억하듯
이제 통일조국에서 살게 될 우리 후대들
목매여 이야기하리라
2013년 3월전원회의에 대하여

1962년에도 그러했더라
카리브해지역에서 전쟁위기 조성하며
사회주의진영들 핵몽둥이로 허물려던
미제
우리에게도 시련의 폭풍이 몰려오던
그 나날
우리 수령님 신안하시었다
경제와 국방병진로선!

그 로선이 아니었다면
나의 행복의 요람은 짓뭇개졌으리
미제의 위협에 대국들도 겁먹던 그때
그 로선으로 이 땅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 글소리 랑랑했고
공장에서 전야에서 혁신이 나래쳤거니

그때처럼 오늘도 힘의 정책으로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조선 없애보려는
미제
그 정수리에 철추를 내리셨어라
그날의 수령님처럼 김정은원수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미제의 핵공갈 쳐갈기며
3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치던
우리 원수님의 철의 음성
그 의미 맥박치는 이 땅에
아, 파도쳐오는 승리의 환희여
우리는 벌써 이겼다!

어릴적 원산항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 바라보았듯
내 이제 보게 되리라
우리에게 한점 불꽃만 튀거도
창공에서 박살나고 태평양에 수장될
미제의 핵비행기들, 핵항공모함들...

미제와 그 주주들 아무리 발악해도
티끌도 건드릴수 없으리
핵무력건설로 날마다 강성해지는 우리
이 땅에선 경제강국건설의 노래 우렁차고
백두산봉태우에 통일조국 우뚝 솟으리니

오, 그 땅 그 삼천리에서
부강번영을 누리갈 우리 후대들
오늘의 나처럼 뜨겁게 이야기하리
역사적인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있어
이 땅에 통일조국이 왔다고
승리와 행복이 펼쳐졌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인민군군인들

공화국은 왜 병진로선을 택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책과 가증되는 핵위협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민족자위위협전선의 합법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시는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적로선이다.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택하게 된것은 우선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에 불을 달기 위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

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이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다.

지금 미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제일 무시위하고있으며 핵무기를 들이친 공화국이 경제적부흥을 이룩하면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책은 끝장이라고 보면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따라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화국의 평화적노력은 침에대한 대적투쟁을 동반하게 되어있으며 《제재》압박으로 목조르기하여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도 장기화될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화국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추진할수 없는것이다.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택하게 된것은 또한 민족자위위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생을 어려웠는 심권력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인민들을 선군의 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것이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따라서 병진로선은 필수적이다.

공화국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높은 수준의 핵시험에 성공한 그 기백으로 조

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다같이 밀고나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반드시 이룩하고자할것이다.

공화국이 새로운 병진로선을 택한것은 다음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해서이다.

대대로 한강토우에서 살던 우리 겨레를 돌로 갈라놓은 분렬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그 미국은 오늘도 남조선에 감행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다. 미국이 핵무기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겨레를 항시적으로 위협하며 핵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책동을 짓부시지 않으면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 겨레가 핵전쟁의 참화바에 입을것일것이다.

공화국의 핵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는 위력한 보검이다. 공화국이 핵보검을 역세게 들어쥐고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민족이 잘사는 통일도 하루빨리 올수 있다.

김연희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의 가증되는 반공화국적대시압책동과 핵전쟁소동으로 하여 전면전쟁으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때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미국의 장기화될 대조선압살책동에 주동적연습까지 벌여놓으며 공화국의 제도를 끝까지 허물어보려 하고있다.

자기들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없애겠다고 피눈이 되어 달려드는 적대세력여 용서할 사람은 공화국에 없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면대결전에 한사갈없이 떨쳐나섰다. 만약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인성함과 명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인우들의 머리와 고에 단호한 보복타격을 안기고 정의의 조국통일대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할 일념으로 군대와 인민들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 노래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를 부르며 신군들의 나,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삼천리강토우에 거어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세계를 지

배하는 수단은 힘이며 그 힘의 내용은 핵이다.

미국은 바로 핵의 힘으로 오늘의 세계를 미국의 세계로 만들고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서 기본은 군동을 지배하는것이든 여기서도 기본은 남조선에 장악하고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을 도발하는 데 있다.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때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원자탄까지 사용하려 했던 미국은 그

배하는 수단은 힘이며 그 힘의 내용은 핵이다.

미국은 바로 핵의 힘으로 오늘의 세계를 미국의 세계로 만들고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서 기본은 군동을 지배하는것이든 여기서도 기본은 남조선에 장악하고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을 도발하는 데 있다.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때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원자탄까지 사용하려 했던 미국은 그

이것은 핵무기를 앞세운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의 총파산으로 된다.

공화국이 그 무슨 경제적해택과 바퀴벌레 위한 총정물로 핵을 보유하고있고 생각하는것이아말로 허황하기 그 지없는 오산이다.

이 세상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다는것이 어제 오늘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신념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자위적 핵보검을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데 병진로가 있다.

공화국에 있어서 핵의 포기는 오늘에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이다.

미국이 거짓말 한마디로 전쟁억제력을 포기한 나라를 위해 무너뜨리고 깔고앉은 것처럼 조선반도에서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것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치적흥정물이 아니다

후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만들어놓고 기나긴 세월 항시적으로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여왔다.

해마다 미국이 남조선과 야합하여 벌여놓는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은 용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핵전쟁수단들이 동원되어왔다.

미국이 침략야망은 최근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곁들며 《제재결의》라는것을 무차별하고 조작하고 저들의 《3대핵무력》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의 도발선에 불을 달라고 책동하면서 더욱

후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만들어놓고 기나긴 세월 항시적으로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여왔다.

해마다 미국이 남조선과 야합하여 벌여놓는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은 용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핵전쟁수단들이 동원되어왔다.

미국이 침략야망은 최근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곁들며 《제재결의》라는것을 무차별하고 조작하고 저들의 《3대핵무력》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의 도발선에 불을 달라고 책동하면서 더욱

는 든든한 군수공업이 있기에 공화국은 미국이 적대시압살책동을 계속해도 끄떡없이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이 이번에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부강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되면 나라의 국력은 훨씬 강화되어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왜 사회주의의 시키는가

가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를 들으며

날이 갈수록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여놓은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고있으며 대조선 《제재》소동도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인민은 미국땅에 화살 한촉, 들맹이 한개 던진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의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풀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기고도 모자라 오늘도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그것은 바로 공화국이 자주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곳곳이 나아가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수 없다.

모란봉악단에서 형성한 노래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를 들어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노래는 우리는 왜 사회주의의 지키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군대와 인민의 사회주의수호의 신념과 의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우리는 왜 사회주의의 지키는가
방선의 초병들은 심장으로 말을 하네
나서 자란 정든 요람 목숨보다 더 귀중해
우리 운명 사회주의 총대로 지킨다고
세상에 제일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 총대로 지킨다고
...

군복을 갖 입을 신입병사들도, 수십년세월 총대를 쥐고 조국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는 인민군대지휘관들도 가슴에 깊이 간직한것은 자신들모두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제도는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철리이다.

그 철리를 간직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있기에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은 끄떡없었으며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 든 전선에서 기적과 비약이 창조될수 있었던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자기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사회주의를 버리면 곧 죽음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이고 성실한 담을 바쳐마련해가는 귀중한

창조물에 대한 열렬한 애착이고 사랑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른바 발전된 문명과 물질적번영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지만 99%의 근로대중은 1%의 특권층에 의하여 착취받고 억압받는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하나 공화국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 존엄과 값높은 삶을 누리려고있다.

공화국의 경제는 자립적인 축적제이며 그 위력도 자신들이 펼쳐간다는 신심을 지닌 근로자들의 애국심이 떠받들려 비날론폭도가 마련되고 주체철생산의 기적이 창조되었으며 도처에서 대교조의 불길기 새차게 타고르고있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헛나발을 불어대고있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불변한것이다.

공화국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주의는 운명이며 미래이다.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켜주고 장학금까지 안겨주며 배움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도록 보살펴준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그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내다보며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일으켜나

